
 <b>인천광역시</b>		<h1>보 도 자 료</h1>		 <b>인천의꿈*</b> <b>대한민국의미래</b>
		배포일자	2023년 2월 9일(목) 총 2매	
담당 부서	장애인복지과	담 당 자	• 장애인서비스팀장 • 담당자	정보영 ☎440-2936 고성희 ☎440-2969
사진(이미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보 도 시 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대상자 모집**  
 - 수술비 최대 7백만원, 재활치료비 최대 3년간 3백만원 지원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월 27일(월)까지 ‘청각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비용 지원 사업’ 대상자 28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공달팽이관 수술은 보청기로도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고도 난청의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수술로, 달팽이관에 가느다란 전극선을 삽입해 소리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듣게 하는 수술이다.

지원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이 1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810만 2천원) 이내이며, 만39세 이하인 청각장애인이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27명이 수술비 등을 지원받았다.

시는 오는 2월 27일까지 군·구를 통해 대상자를 추천받은 뒤 최종 선정 대상자에게 1인 최대 7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비를 지원한다. 또한 재활치료비를 최대 3년간 2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연차별로 차

등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만 18세 이하 청각장애인 중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경우, 연 150만원 범위 내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지원할 방침이다.

전명금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 사업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뿐만 아니라 일상 생활을 찾을 수 있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불편을 줄여나갈 수 있는 지원책 마련에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